

제3부 동북 시베리아 샤머니즘과 신화

3. 한국 신화 주지(主旨)와의 비교

1> 고구려 신화

○ 가족 신화이자 본풀이 신화로서의 고구려 신화

- 고구려 신화는 해모수, 동명왕 유리왕에 이르는 삼대기적인 사족사의 신화다. 제1대는 용거(龍車), 제2대는 인마(麟馬), 그리고 제3대는 창틀에 의지해서 각기 우주 여행을 실천하고 있다.
- 삼대 사이의 차이는 건국과 관련된 세대 간 기능의 차이이다. : 1대-왕조 건설의 기초를 닦고, 2대는 왕조를 본격적으로 건설, 3대는 왕조를 더욱 튼튼하게 보완하는 기능을 수행
- 세대 차에도 불구하고 세대 간 지속성이 발견되는데 그것은 '씨앗과 열매의 수수관계'이다 -> 고구려 신화를 무속 신화의 한 변이로 보는 것이 가능하다.
- 고구려 신화를 포함한, 한국의 상고대 신화는 한 왕조의 시조의 창업에 관한 '본풀이', '본향풀이'이다. 한 왕조의 첫 조상과 내력, 왕조의 창립 과정에 관한 풀이가 곧 우리 상고대 왕권 신화이다.(130)

○ 고구려 신화와 시베리아 신화와의 비교

1) 인생란, 비신성의 초자연

- 고구려 신화가 무속 신앙과 관련되어 관찰되는 경우, 가장 특징적 대상은 동명왕이다. :성취와 문제 해결 과정에서 '무왕', 곧 '샤먼 킹'으로서의 성격을 가장 농후하게 보여줌(131)
- '성스러운 성취담' 또는 '성(聖)의 해결담'이라는 성격을 갖추고 있다.(132)
: 동명왕 신화는 '과제/성취' 또는 '결손/해소'라는 양분론적인 서사 문법으로 구성됨(ex - 수로왕, 혁거세의 경우 이미 하늘에서 주어진 신성 징표를 기점으로 장애나 난관 없이 왕국 건립)
- '탄생 장애'를 겪는다. : '알'이면서도 유기당한다. -> '인생란(人生卵)'이다. 신화적 영웅이 겪는 절대 고독, 재앙, 질병, 단명 등이 예언된 찢먹이는 일부러 버려졌다가 다시 거두어들여 지는데 이로써 찢먹이는 삶의 난관을 이긴 것으로 생각됨(유기/재수용, 결손/해소, 죽음/재생의 문법)(133)
- 탈해의 알은 천생란이기는 하지만 버린 손에 의해서는 끝내 재수용되지 못한다. 껍질 속에 담겨서 바다로 유기당하고 스스로의 노력이나 궤술에 의해 자신을 위한 새로운 영토를 개척.
- 그러나 양자 사이에 공통점에 주목할 경우 '인생란-유기-(재수용/비재수용)-출향과 그에 이은 성취'와 같이 도식화된 서사 진행 과정이 양자 사이에 공존하고 있음
- 혁거세나 수로의 알에는 자줏빛 줄, 홍폭, 황금빛 등의 신성 징표가 수반됨에 비해 탈해나 주몽에게는 신성 징표를 가지지 못했다. 전자가 '샤먼의 혼란(魂卵)'으로서 '신성한 초자연'이라면 후자의 알들은 '비신성의 초자연'이라 부를 수 있다. 세속 세계 또는 질서 안의 초자연 또는 이단인 셈이다. 이것은 일상적 세계주변의 상대적인 타자로서 그나마 경외나 외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또한 민속 신앙의 대상물이 될 수도 있다. (135-36)

2) 비신성의 초자연은 수용되거나 용납되기까지의 정화 과정, 통과의례 절차.

- 인생란은 비정상, 정상의 실조로서 이 실조증은 혼돈, 무질서라 할 수 있다. 그것은 소외요, 어느 권외에 나가게 됨을 의미. 바로 이 점에서 주몽 신화와 무속 원리의 연관성을 지적할 수 있다. 소외라는 반사회적 상황은 무당 또는 샤먼의 숙명이기 때문
- 주몽은 인생란 상태의 탄생과 그 부화로 이룩되는 탄생이라는 이중의 탄생을 하는데 이 특이한 탄생 과정은 시베리아 전 지역에서 발견되는 '전 무당의 통과 의례 절차'에 비견될 만한 유형성 강한 절차를 거친다.
- (1) 첫 '결손/해소' 후의 또다른 '결손/해소' - 부여 왕자들의 박해를 피해 안주할 영토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주술적 도주'의 주지를 보여줌¹⁾: '채찍을 들어 하늘을 가리켰다' 그리고 그는 주문을 외었다. 이것은 일련의 주술적 행위. 활을 들어 물을 치는 동작까지 고려하면 주술적 도강의 신비성은 한층 강해짐(140)
- (2) 두 번에 걸쳐 편(鞭) 또는 책(策)을 이용해 이적을 행한 것으로 이 채찍 자체를 주구(呪具)라 할 수 있다. 활도 마찬가지로 이는 시베리아 샤먼의 주술적 도강과 매우 가한 유비를 보여줌. 북은 의상과 함께 샤먼의 우주 여행 또는 타계 여행에서 교통 수단으로 간주되는데 북이 샤먼의 말이라면 북채는 채찍. -> 주몽의 주술적 도강과 시베리아 샤먼의 주술적 도강 사이에 무시할 수 없는 공통점이 있음. 주몽의 두 번째 '결손/해소' 역시 시베리아 샤머니즘적인 것이 그림자를 던지고 있다.

- 3) 북의 상징성과 신성성

- (1) 동명왕편의 기록에 의하며 북을 국가의 상징이거나 왕권 상징으로 의시하고 있다. 시베리아 샤머니즘에서도 북은 단순한 악기가 아니며 의상과 함께 가장 중요한 샤머니즘을 위한 주술 용구다. 그것은 신성한 조상의 산 또는 '세계 산'의 나무로 신령의 뜻을 따라서 만들어져야 한다.
- (2) 북의 구조 : 북의 채 그리고 중앙 가늌대들은 완벽하게 시베리아 샤머니즘이 갖추고 있는 우주 구성론(cosmology)을 표출한다. 샤먼의 우주 여행, 타계 여행의 절차며 내용 등이 그림으로 표현됨(각종 천체, 세계수, 우주 나무 등의 나무/ 세계산, 각종 동물, 인간 생태 등). 샤머니즘의 조상 숭배, 자연 숭배, 그리고 토테미즘, 애니미즘에 관련된 신격이 북과 일체화되어 있다. 북은 샤먼의 작은 만신전, 우주적인 만신전이라 부를 만하다. 북의 획득은 곧 성무식 혹은 취임식(installation-rite)으로 주몽이 북의 획득으로 왕의 위의를 갖추려 했음을 볼 때 천부의 왕권 신화에 천부의 무권이 함축되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적어도 무권에 의해서 더욱 보완되고 증폭된 왕권의 상징 그것이 바로 주몽의 북의 의미
- 주몽의 수호 동물을 사슴, 말, 물고기, 거북, 그리고 새(비둘기)에 한정하면 이들은 시베리아 샤먼들의 의상에 그리고 북에 곧잘 그려져 있는 전형적인 수호 동물 무리임.
- 동명왕은 탄생에서부터 계속된 '결손/해소', 또는 '과제/성취'의 과정을 시베리아 샤머니즘이 내포하는 몇 가지 주지들에 의해서 치러낸다. 그러면서 그는 무당으로서 갖는 권능에 차츰 단계적으로 왕으로서 갖게 될 권능을 더해 가고 있다.

- 4) 고구려 왕조 3대와 시베리아 샤머니즘 주지와와의 유비성

1) 부여의 왕자 일행에 쫓기던 그가 마침 압록강 동북의 개사수 또는 염제강에 다다랐으나 배가 없었다. 이에 주몽은 채찍을 들어 하늘을 가리키며 "나는 천손(天孫)이자 하백(河伯, 강물의 신)의 외손이니 바라건대 황천은 나를 보살피어 다리를 놓으라."라고 빌고 그와 함께 활을 잡아 강을 찼다. 그러나 물고기와 거북들이 머리와 꼬리를 연하여 다리를 놓았다.

- (1) 히모수는 시베리아 샤머니즘에 견줄 만한 우주 여행을 수행하는 능력 뿐만 아니라, 그 변신술(둔갑) 경험에 있어서도 시베리아 샤머니즘의 그 방면 주지를 구체적으로 재연해 보이고 있다. - 동물로 변신, 천상계와 지상 세계를 내왕, 수중 세계, 곧 지하 세계와 지표 세계 사이의 우주 여행을 행하는 권능 등. 시베리아 샤먼은 우주 여행을 할 때 동물로 변신함
- (2) 유리왕(해모수-동명왕-유리왕) : 탄생 직후에 버림 받은 아버지의 전철을 다른 형태로 밟아 유복자로 자란다. 유리의 생애담은 유기를 극복하고- 아버지와 재회하고 -왕자 자리를 얻는. 역정 바로 그 자체에 관한 서사 즉, ① 수수께끼 풀이와 그 결과인 감추어진 물건 찾기 ② 감추어진 물건인 반토막 검을 아버지가 소유하고 있었던 나머지 반토막과 부합시켜 낙착을 보게 되는 '혈연 확인' ③ 그것에 뒤이어 하늘을 나는 능력, 곧 '우주 여행'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왕위 계승권 획득' 등 이는 예비시험, 본격 시험, 보완 시험 등 세 번 겪음을 하는 전형적인 입사식 절차를 반영하고 있음

5) 무왕 신화권 혹은 무왕 신화대

- 부여 - 고구려계 왕조의 3대기는 각기 시베리아 샤머니즘과 연관된 주지들로 '결손/해소', '과제/성취' 등 일련의 서사 진행의 결정적 계기를 넘어서고 있다. 이는 부여 - 고구려계 왕조 3세대 에 거친 가계 신화가 결보기와는 달리 왕권 신화에 그치지 않고 동시에 무속, 그것도 시베리아 샤머니즘 신화와 접맥된 무속신화이기도 하다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이는 또한 가락 신화, 신라 등 한반도 남북 왕조의 신화에서도 찾을 수 있다. 나아가 일본 신화에까지 확대되어 시베리아 신화 및 샤머니즘과의 유대가 논란 될 수 있다. 무권과 왕권이 중첩된 '무왕 신화권' 또는 '무왕 신화대(帶)를 중앙 아시아에서 티베트, 몽골을 거쳐서 중동부 시베리아 그리고 한반도와 일본에 이르도록 설정해 볼 수 있다.(151-52)

2> 탈해왕 신화

- 탈해왕은 알의 상태로 수중 세계에서 나와 그에게는 생소한 육지 세계에서 인간으로서 얻을 수 있는 최고 가치의 하나인 왕위를 성취한다. 그의 성취는 일종의 '타계 여행'의 결과다. 이 같은 '유기/새로운 세계에의 편입'이란 서사는 동명왕과 유리왕에게서도 반복, 재현된다.
- 탈해는 이 과정에서 성스러운 징조와 트릭스터다운 풍모, 소외의 고독과 최상급의 성취, 삶과 죽음, 그리고 고귀한 가문 유래와 야장의 대물림 등 여러 겹에 걸친 모순성을 드러낸다. 상고대 왕들 중 가장 복잡한 야누스의 얼굴을 간직하고 있다.
- 그는 완하국 용궁 출신이라고 칭하면서도 야장의 후예로 자처. 용궁이라면 지리적으로 동남해에 자리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시베리아 권역의 '야장 무(巫)' 또는 '야장 왕'과의 연관을 갖는 것. 야장 왕은 각종 주구(방울, 동경, 등)와 연관되어 적어도 샤먼이 누리는 사회적 지위에 견줄 만한 사회적 지위를 누리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탈해와 같은 야장 왕의 존재 없이 신라의 정교한 금속 공예품을 생산할 수 없었을 것.
- 외지인인 탈해는 '돌무덤 들기'를 통해 신라인으로 재생한다. 해외인으로서의 죽음이 돌무덤 들기로, 그리고 신라인으로서의 재생이 돌무덤 나오기로 연출된 것으로 추정됨.
- 탈해가 보인 가장 뚜렷한 시베리아 샤머니즘과 비견된 주지는 그의 사후 이적에 있다. 그가 사후 산신의 자리(토함산 산신)를 획득한 것은 '바다 출신의 산신'임을 보여준다.
- 사후의 신격화는 탄생시의 신격을 재회복함으로써 왕들의 삶이 순환 또는 회귀하는 원을 그리게 됨을 의미한다. 그러나 탈해의 경우 돌아갈 하늘이 없기 때문에(자신의 궤술로 신라에 귀속했고 왕위도 스스로 쟁취) 탈해의 경우 사후 남다른 이적이 필요했던 것으로 해석됨.